

4) 아동보건 :

(a) 수유 : 최종아의 이유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27.2%로 제일 많았다.

(b) 예방접종 종류에 대한 지식과 실천 : 어린이 예방접종 6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 부인은 4.5%이었으며, 85.5%의 부인은 1가지 이상 알고 있었다. 1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는 84.8%이었고 교육 정도별로는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

5) 가족계획 :

(a) 현존 자녀수는 평균 2.48명이었다.

(b) 가족계획 찬성율은 87.6%이었고 가족계획 실천율은 25.2%이었다.

(c) 분만후 피임 시기는 월경이 있을 때부터가 37.4%로 가장 많았다.

(d) 분만후 피임하지 않고 있다가 임신된 경험이 있는 부인이 35.2%이었다.

6) 모자 보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

대상 부인의 66.6%는 임신 분만 육아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느끼는 율도 높았다.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대한간호, Vol. 12, No. 6, pp.77~84, 1973.

최 대 옥

본 조사로서 도시 농어촌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도시 농어촌의 건강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찾아내어 가급적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며 최종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밑 받침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데 있다고 본다.

1) 조사지역의 일반적 특성

(1) 조사지역인 강릉시와 명주군 중에서 강릉시는 시내에 속하는 7개 동을 도시로 정하고 해변가에 인접된 3개 동을 어촌으로 정하였고 명주군 중에서는 2개 면을 선택해 각각 100명으로 전체 300명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기일은 73년 6월 5일~30일 까지고 25일을 조사 기일로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경제상태는 상이 3% 중이 72%, 하가 25%로 거의가 중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 건강 상태

(1) 조사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전체에서 18%이고 보통이다가 47%, 약하다가 22%, “병중이다가 13%이며 이중 위장장해가 4.3%, 빈혈 4%의 순으로 되어 있다.

(2) 건강한 사람도 포함하여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프냐에서 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도시 30%, 어촌 33%, 농촌 30%로 나타났다.

3) 치료 여부

(1) 치료 방법으로 도시와 어촌은 약국으로 도시 41%, 어촌 39%이나 농촌은 집에서로서 49%나 차지한다.

(2)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서 돈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 66%, 어촌 72%, 농촌 81%이다.

(3) 치료를 받는 경우 매우 아파야 병원에 간다가 우위이나 도시는 약간 아파도 병원에 간다가 26%이고 어촌은 13%, 농촌은 11%를 나타냈다.

(4) 치료의 방법으로 점을 친다가 도시 3%, 어촌 12%, 농촌 7%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관념은 보건계몽으로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라 본다.

4) 보건소

(1) 보건소의 여러가지 기능중 특히 부인에게 필요한 지식인 예방주사 가족계획 결핵사업 이 세가지에 대한 지식을 조사 하여본 결과 세가지 모두 관리 한다는 정답이 도시 64%, 어촌 35%, 농촌 27%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 예방주사만 맞춘다로 도시 17%, 어촌 35%, 농촌 51%로 조사되었다.

(2) 보건소를 알게 된 동기를 보면 가장 높은 율이 이웃사람으로 도시 27%, 어촌 30%, 농촌 36%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이용도는 도시 어촌보다 농촌이 더 높다.

현재(73년 10월) 강원도는 19개 시군에서 107개 읍면을 갖고 있는데 이중 무의면은 9개 면인 8개 지역을 주민의 건강 복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급히 의료인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다.

5) 예방주사

(1) 예방주사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전체에서 87%로 나타났으며 자녀에게 접종한 율은 종두 26%, BCG 22%, 소아마비 21%의 순이다.

그리고 접종한 종류는 기억하나 언제 맞추었는지 모른다가 우위인 58%이고 그 다음으로 종류기억이 안난다가 25%이다.

또한 맞추지않았다는 부인이 4%나 조사되었다.

6) 영유아 식이

(1) 모유를 떼는 적당한 시기로 도시는 일년 이내인 55%이고, 어촌은 1,2년 이내인 34%, 농촌은 3년 이내인 40%로 조사되었다.

(2) 이유식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느냐에서 모두 9개월경으로 도시 53%, 어촌

46%, 농촌 33%로 차지했다.

7) 분 만

분만 장소로서 가장 높은 것이 자기집으로 도시 53%, 어촌 67%, 농촌 81%로 나타났다.

또한 분만전에 진찰을 받아야 하느냐에서 전체에서 받아야 한다가, 62% 모르겠다가 28% 아니오가 10%이다.

이러한 것은 분만전의 진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어도 분만 전에 수회 정도는 진찰을 받도록 계몽해야 하겠다.

8) 결핵 보건

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인가에서 옳은 답이 75%이고 유전되느냐에서 옳은 답이 31%, 어른한테만 걸린다가 58%로 나타났다.

전체 주민중 현재 결핵을 앓고 있다는 부인이 5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 결핵 이환율인 5.1%보다 성적이 좋다고 본다.

9) 행주에 대한 인식

행주는 살아야하나에서 정답이 90%이고 틀린답이 3%, 모르겠다가 7%인데 1주에 한번 이상 삶는다가 도시 72%, 어촌 23%, 농촌 34%이고 안 삶는다가 도시 8%, 어촌 23%, 농촌 40%나 나타났다.

10) 치아 보건

충치가 없는 부인은 도시 8%, 어촌 19%, 농촌 11%로 농촌이 높으며 숫자는 2개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 38%, 어촌 36%, 농촌 36%를 차지했다.

또한 충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에서 도시 농촌은 20세 이전으로 도시 34%, 농촌 39%이나 어촌은 30세 이전으로 35%를 차지했다.

이상에서 도시 어촌 농촌으로 구분은 하였으나 조사지역에서 어촌이 농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도 농촌보다 시내와 교통이 가까운 곳이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계몽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겠다.

보건소 근무 및 업무능력에 관하여

중앙의학 26권 4호, 1974.

고 송 자

1970년 12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강원도 일대 17개 보건소의 인구 및 인적사항, 예방접종량 및 전염병발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